

4. 고양송포 호미걸이와 고양 들소리

현재 고양시에는 ‘고양송포 호미걸이보존회’와 ‘고양들소리보존회’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고로 이 지면을 통해 그 이론적인 차이점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4.1 고양송포 호미걸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2호 ‘고양 송포 호미걸이’는 1998.4.6에 지정되며 그 보유자로는 김현규(사진 17)와 박영봉(사진 32)을 인정하였다. 동관(洞寬) 김현규(金鉉圭, 1942-2004)의 부친(김형문)과 조부(김하곤)는 대화리 뱀개마을의 김서(위의 ‘조사지역 참조’)출신이지만, 사변통에 부친을 잃은 동관은 양촌의 큰아버지(김형운)²⁰⁾ 덕에서 성장하였다. 큰아버지는 도목수였고 소리에도 밝으셨다. 동관은 어린나이에 농사꾼이 되었고 백부의 영향을 받아 17세부터는 뱀개의 선소리꾼 노릇을 했다. 대목과 소목 일에도 일가견을 가진 동관이 서울로 이사한 20세까지는 마을에서 호미걸이를 행하였지만, 이후 중단되었다가 1984년부터 다시 부활시켰다. 소리에 취미가 많았던 동관은 27세때부터 한성권변의 유개동(1898년 생, 남, 서울출신, 1968년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선소리산타령의 예능보유자) 문하에서 경기민요, 선소리산타령 등 전문소리꾼들의 소리를 익혔다. 7년후 유개동이 타계하였고, 동관은 여전히 선소리산타령보존단체²¹⁾에서 활동하였으며, 1977년도엔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의 이수자가 되었다. 필자가 뱀개마을을 방문한 1985년 당시엔 호미걸이회원 38명중 36명이 김녕김씨 동족이었다.

을축년(1925년) 대홍수로 인해 한강제방이 착공되어 1932년에 완성되었는 바, 그 이전까진 뱀개의 한해 농사가 한강범람에 좌우되었다. 두벌김이 끝나갈 무렵인 음력 6월 25일경이면 그해 농사의 길흉을 점칠 수 있었기 때문에, 호미걸이 행사를 하자는 말에 따라 전체 대동회의가 이를 받아들이면, 7월 칠석 즈음에(앞의 ‘농사일정 참조’) 하루 날을 받아 풍년을 구가하며 ‘호미걸이’²²⁾를 한다. ‘호미걸이’를 행사하는 날 아침엔 제관이 도당산(김동마을 초입에 있었다)의 상산나무²³⁾ 아래에다 제상을 차리고서 상산제를 지낸다음, 마을의 놀이마당으로 내려와서 대동제를 지낸다. 대동제에서는 부인네들이 덕담을 하고 고사를 지냈다. 이어서 초청한 이웃 두레(서촌, 동촌, 내촌, 성저, 강서, 백암 등)를 맞이하는 깃절받기(사진 43~45)와 깃대 재주부리기 및 조사놀리기(사진 48, 54)를 한다. 조사놀리기에서는 나이 어린 ‘조사’가 깃대에 올라가 깃대 아래에 있는 두레패들과 재담을 주고 받으며, 깃대 위쪽의 추렴을 붙잡고 춤을 추기도 한다. 이어서 두레꾼들이 뺨 둘러서서 선소리꾼의 북장단에 맞추어 10곡으로 구성된 일련의 논렘소리(고양 23~33)를 한바탕 부르다음 유가제로 호미걸이 행사를 끝낸다. 유가제에서는 두레농악대가 집집

20) 1985년 조사당시에 살아계셨으면 109세라고 했으니, 1877년생인 셈이 된다.

동관의 부친과 7촌사이였던 무권이 할아버지는 구학문에 조예가 깊고, 소리명창이셨다.(김현규 대담)

21) 생존 예능보유자는 이창배(1916-1983, 스승은 최경식, 선소리산타령은 왕십림패 이명길의 영향을 받음)였다.

22) 일산동구 백석동의 최기복은 ‘호미꽃이’ 때도 쉽 한다며 호미걸이라 하지않고 호미꽃이라 일컫는다.

23) 큰 소나무였으며, 동관의 11대조 무덤 한쌍이 있는 밤나무 옆이었다. 필자의 1985년 답사 당시엔 상산나무의 그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다.

을 돌면서 풍물굿을 치고 축원을 해 준다.

동관이 배출한 오랜 수제자 중엔 최장규(1964년생.남.1986년부터 동관의 문하에 들)와 강운성(1965년생.남) 및 김미화(1965년생.동관의 딸) 등이 있으며, 조경희(1960년생.여)는 1998년부터 최장규에게 사사함으로써 동관을 뵈게 되었다고 한다. 그 뒤에 조경희가 조교로서 활동하였고, 동관의 사후엔, 박영봉 보유자(1922년생.악사)와 그 조교인 김기성(1940년생.남)이 있지만 박보유자의 노환으로, 조경희 혼자 전면에 나서서 동분서주 애쓰고 있다.

4.2 고양 들소리

고양들소리 보존회를 이끌고 있는 최장규는 1986년부터 동관에게 입문하여 소리의 바탕을 다진, 뛰어난 제자이다. 그는 옛 송포면 대화리 이외의 고양지역에서는 또다른 소리제(制)의 들소리들이 전승되고 있음을 알고, 이들 중에서 일부를 배우고 익혀 2000년도에 고양들소리보존회를 창단한 후, 2002년부터 팔목할만한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고양들소리’는 현재, 이천봉(식사동)의 ‘수아-소리’, 최기복(백석동)의 긴소리(CD 11)와 노로타령, 최기복과 이금만(식사동, CD 5)의 논김양산도, 최기복과 이금만(CD 6)의 논김방아타령, 박영봉(마두동)의 뗏다소리, 김현순(성석동 마골)의 헤이리소리(CD 14), 성석동 진밭의 호로리 및 최창성(지축동)의 ‘네홀래야’ (CD 9) 등의 논맴소리들과 그밖에 진밭의 모찌는소리, 박영봉으로부터의 용두레질소리, 느린 열소리와 자진 열소리 등을 전승·보존한다. 앞으로는 법꽃동 김사남 제의 ‘사두여’ (CD 16)와 선유동의 쌍가래질소리(CD 12)가 첨가될 여지가 있다.

4.3 차이점

양 보존단체의 존재의의적 차이점과, 논맴소리 제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존재의의적 차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2호 ‘고양송포 호미걸이’는 고양시의 옛 송포면 대화리 뱀개마을 전승의 ‘호미걸이’ 놀이문화를 지정 보호한다. 뱀개마을의 ‘호미걸이’는 칠월칠석 즈음에 하루 택일되어 놀던 의식을 겸한 놀이이며, 상산제-대동제-대동놀이-유가제로 구성되었다. 그 대동놀이 중에 두레패들이 그냥 둘러서서 10곡의 논맴소리들만 연달아 부른다.

‘고양들소리’ 보존회는 현재 비지정단체이며, 공연내용이나 그 표방하는 바로 볼 때, 옛 고양지역의 농사철에 농사와 관련하여 일의 현장에서 불러우던 여러 가지 노래들을 보존, 전승 및 공연무대로 옮기고자 한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고양들소리’로서는 모심는소리를 당연히 불러야 하고 고양지역에서 전래되는 여러 가지 농요들을 레

퍼터리로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제22호 고양송포 호미걸이'의 진수를 보여주는 '전승' 공연에서는 예를 들어, 모심는소리를 불러서는 안되며, 들에서 논을 매며 불러서도 안된다. 대동놀이에서의 논맴소리는 그해의 두레 지심매기가 끝난 시점에 마을의 마당에서 부른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함부로 보태거나 감히 하지않는 것, 그것이 지정문화재로서의 의무이고 '가치'이며 특색이다.

2). 논맴소리 제(制)의 차이

'제22호 고양송포 호미걸이'의 대동놀이에서 불리우는 논맴소리는 긴소리(싸-소리)-사두여-고양형 논김양산도-너이나누 방아타령-놀노리-뻗다(자진방아타령)-상사-자진놀노리-우야훤훤- '몸돌여' 이다.

이들 동관제와 '고양들소리'가 현재 전승하고있는 몇곡을 비교해 본다. 본항에서 서술하지않은 '고양들소리' 전승곡들에 대하여는 본서의 다른 항목을 보거나 CD 및 음향자료를 청취하기 바란다.

i. 동관제의 긴소리(싸-소리)〈고양 23, CD 1의 첫곡〉와 이천봉의 '수아-소리'〈고양 34〉

이들은 모두, 경기지방 논맴소리중 드문노래에 속하는 싸-소리에 속한다.²⁴⁾

〈고양 23〉과 〈고양 34〉를 대조해 보면, 그 차이가 쉽게 눈에 들어온다. 〈34〉의 받음소리는 “에헤헤에 - / 에헤에 - / 수 아 - / 아-아-, / 에헤헤에 - / 에헤에 헤이 헤-,”가 3분박4막 6마디씩에 배정되어 있음에 비해, 동관제〈23〉의 받음소리는 “에-이 에 --, / 에-이 에에 - 어이-, / 싸-아-, 이 -, / 이여 - 어 - 어 -, / 어어 - 어 - 어 -,”가 3분박으로 12박+11박+12박+8박+9박에 배정되어 불리운다.

동관제는 마디마다 박이 일정하지않고, 선율에 굴곡이 많아, 제창하려면 오랜 훈련으로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고로 더욱 어렵다.

ii. 논김양산도 〈고양 25, 36, 45〉(CD1의 세 번째곡, CD 5)

〈고양 25〉는 1985년도에 녹음된 동관제의 논김양산도이며(CD1의 세 번째곡), 〈36〉은 2007년도의 이금만 창(CD 5), 〈45〉는 최기복 창이다.

이들은 모두 '고양형' 논김양산도(분류상의 명칭에 대하여는 앞의 보급용 악보 향이나 후술하는 논맴소리 해설을 볼 것)에 속한다.

〈36,45〉의 받음선율은 동관제인 〈25〉의 그것에 비해 3분의1배가량 더 길다. '고양형' 논김양산도의 받음선율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인 파주금산리민요에서 들을 수 있는 '연파형' 논김양산도²⁵⁾의 받음선율 끝마디가 생략된 격이고, 이 생략된 부분을 〈25〉에서는 메김소리꾼이 처음에 “도 - ”하고 부르는 셈인 바, 〈36,45〉의 메김소리에서는 이러한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24) 이소라, [경기도 논맴소리 자료총서 제4권]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6. 195쪽.

25) 이소라, “논김양산도 ㄷ” [한국민요학 제7집]한국민요학회, 1999. 171~198쪽.

iii. 너이나누 방아타령<고양 27>, (CD 1의 네 번째곡)과 논김방아타령<고양 37,46>(CD 6)

제22호 호미걸이에서는 <고양 27>에서처럼 일반 논매기꾼들이 처음에 “에 헤 에헤 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 구나/ 너니가 나누 나니가 네누,/ 너니나누 방아가 좋 다”로 제창하고 다음번엔 “에 헤 에헤 요,/ 어라 우겨라 방아로 구나/ 화초 밭에 학두 루미,/ 두날 개를 등당 치며,/ 짜른 목을 길게 늘여,/ 길 게, 쭈루룩 하고/ 아주나 감돌아 든 다,”로 제창하여 첫 제창부분의 후반부인 ‘너니가 나누’ 이하에 3분박4박 5마디의 긴 의미구를 넣는다. 이는 흥민요로 성장되는 경기민요 방아타령에서 제창하는 사람들이 “에헤에 에헤에 에헤에 에야/ 에라 우이겨라 방아로구나” 다음의 노랫말을 “이리령성 저리령성 흐트러진 근심 만 화방창에 에헤라 궁글러라” 등 몇가지의 의미구로 바꾸어가며 부르는 것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창배가 정리한 방아타령 가사²⁶⁾엔 ‘화초 밭에 학두 루미’ 이하의 의미구가 들어있지않다.

입말로만 이루어진 식사동(이금만 등)<고양 37>(CD 6)과 백석동(최기복)의 <고양 46>과 같은 ‘논김 방아타령’ 이 고양지방의 노동요로서는 일반형이며, 고행(古形)이다.

iv. 놀노리<고양 28>(CD 1의 다섯 번째곡)와 최기복의 노로타령<고양 47> 및 성석동 마골의 헤이리소리<고양 54>(CD 14)

<고양 28>과 <고양 47>은 받음구와 그 선율에 있어서 미미한 차이가 있고 메김구를 달리 쓰고 있으나, 모두 고양형 훌호리 류(후술 논맴소리 참조)에 속한다.

그러나 <고양 54>는 이들과 달리 메김소리와 받음소리가 각각 <28>이나 <47>보다 배로 긴 파주형이다. 고양지방과 양주지방의 훌호리류가 파주에 전파되어 헤이리소리로 변환되는데, 그것이 다시 마골로 전해진 것이라 해석된다.

v. 상사 <고양 30>(CD 1의 일곱 번째 곡)

고양지방에서는 <고양 30>에서와 같이 짜른 상사 형이 일노래로서 불리운다. <30>의 받음구는 “넬 넬 넬 상사도야”이다.

상사 류의 논맴소리로는 경기도의 짜른 상사형과 경상도의 긴 상사형이 대표적이다. 짜른상사형 중에서 얼얼얼 계통은 전라도의 터다짐소리와 유사함에 비해, 네넬넬 계통은 경기도적인 색채가 가미된 받음구라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고양·파주·양주시 등 서북부 방면은 네넬넬 계통이 지배적임에 비해 동남부 경기도는 얼얼얼 계통이 우세하다.

<고양 30>과 (CD 1)은 1985년도에 송포면 대화리의 호미걸이 회원들이 가창한 것이다. 동관의 생전에 한동안 받음구를 “닐 닐닐 상사도야”로 고쳐 부른 적이 있어 필자가 송포 호미걸이 공연 팜프렛 해설을

26) 이창배, 『한국가창대계』홍인문화사, 1976. 794쪽 이하.

쓰는 기회에 이를 지적한 바 있고, 그 후에 동관도 '닐 닐닐'을 고집하지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

민요 가창자들이 노래를 바꾸는 경향에 대하여 미국의 저명한 음악인류학자 브루노 넬트는 세가지 이유를 든다.²⁷⁾ 하나는 잊어서이고, 둘째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노래를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에서이며, 셋째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환하는 경우이다. 동관이 잠시 '닐 닐닐'로 불러보았던 것은 후술하는 자진 놀노리의 '닐 닐닐'이라는 글귀에 익숙해 있고, 색달라 좋아보였던 탓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받음구는 노동요의 맥(脈)이고, 그 지역 민중의 구전적 역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의해 바꾸어서는 아니된다.

vi. '몸들여' <고양 29>(CD 1의 끝곡)와 '몸돌'

몸돌소리 류는 주로 서부 경기도 지역에서 눈을 다매갈 무렵에 농군들이 한군데로 모여들며 부르는 애염싸는 소리이다. 김포·고양·안양·화성시를 연결하는 일대가 전파의 중심지대(cultural center)를 이룬다. 그 이념형적인 받음구는 "에이여라 몸돌"이다. 필자가 전국의 읍면단위로 골고루 수집한 마을들 중에서는 몸돌형이 43%, 몸돌형이 27.6%를 차지하여 전자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²⁸⁾ 그러나, 보다 북쪽지역인 김포·고양 방면은 몸돌형이 몸돌형보다 우세하며, 파주시에서는 주로 몸돌형이 불리운다. 또한, 대화리 이외의 고양지역에서는 몸들여의 '여'를 붙이지 않는다.

'고양들소리'에서는 고양의 일반형을 택하여 소리한다.

vii. 자진놀노리<고양 31> 등.

<고양 31>의 메김구 중에 "놀노리 소리는 낭구꾼의 소렐세"가 나온다. 이는, 고양형 홀호리나 파주형 헤이리에서 애용하는 메김구이다. '자진' 놀노리라 이름하였듯이 <31>은 놀노리<고양 28>를 변형한 곡이다. <28>의 3분박 리듬이 <31>에서는 2분박 리듬으로 바뀌고, 받음구도 "호오 호, 호호 오야, 닐닐 닐, 허리 조호 호야"로 변구하였다. 매우 경쾌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고양형 홀호리나 헤이리소리와는 달리 <31>은 전혀 전파력이 없는 탓에, 이들 중에서는 맨 나중 시기에, 대화리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여긴다.

'떴다' 소리<고양 29>(CD 1의 여섯 번째곡)를 제22호 호미걸이에서는 '자진방아타령'이라 일컫는다. 선소리산타령에서는 방아타령 다음에 자진방아타령을 부르며, 자진방아타령은 메김구의 '떴다'가 그 특징이다. 선소리산타령의 자진방아타령의 받음구에는 ".. 방아흥아로다"와 같이 '방아'라는 어휘가 들어가지만 <고양 29>의 받음구는 "떴다 떴다, 새 새소리 떠었다 에-, 에호, 예요, 에이에 에헤이야 예야 허 이야 허야, 에 헤어리 떴다"로 '방아'라는 어휘가 들어가지 않는다.

'떴다' 소리가 성석동의 진밭이나 마골, 식사동, 법곶동이나 현천동 등지에서도 논맴소리로 녹음된다. '고양들소리'는 비슷하긴 하나, 대화동 이외의 마을 제(制)를 택하여 가창한다.

28) 이소라, "몸돌소리 考"([최인학 환갑기념논문집]인하대학교, 1999. 509쪽이하)

27) Bruno Nettle, [Folk Music in the United States], 앞의책. 25쪽.

우야훠훠<고양 32>(CD 1의 아홉 번째곡)의 문화중심은 고양·파주·양주시이며, 이들지역에서는 <32>에서처럼 맥받형식으로 수집되는 예가 많다. '고양들소리'에서 '훠-훠' 부분의 가락을 <32>와 달리, 올렸다 내리는 것은 최기복의 가락<고양 48②>을 따라 그려하다.

최기복(백석동)의 긴소리(CD 11)나 최창성(지축동)의 '네홀래야' (CD 9) 등은 제22호 호미걸이에 없는 소리들이다.

viii. 이와같이 제22호 고양송포 호미걸이는 옛 송포면 대화리 뱀개마을의 여름철 풍속인 호미걸이를 전승 보존하는 문화재이고, 2007년도 10월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고양들소리'는 고양 지방의 옛 농경의 현장에서 불리워온 노래들을 대화리 이외 지역의 선소리꾼들로부터 전수받아 전승하는 단체인 고로, 양립할 수 있으며, 또한 양립함으로써 고양의 농요가 보다 폭넓게 충실히 보존될 수 있으리라 본다.

4.4 조사놀리기와 타오스 인디안의 장대 오르기(pole climbing)

필자는 미국 서남부 뉴멕시코주 푸에블로 인디안들의 추수가 끝나갈 즈음인 2007년 9월 30일(일요일)에 타오스(Taos) 마을을 방문한 바 있다. 타오스 산(山)을 배경으로 14세기로부터 거주하고있는 타오스 촌은 1992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²⁹⁾ 오후 1시 30분부터 장대 오르기 의식이 시작되었는데, 한국에서도 대화리 호미걸이에서와 같은 조사놀리기는 희귀한 민속인 고로 흥미있게 보았으나, 촬영 같은 것은 허용되지않았다. 대화리 토민인 김부규(사진 55)는 조사놀리기(사진 54)를 본인 소시적에도 했었고, 옷대 어른들에게도 들었으므로, 동관 이전부터도 뱀개마을에서 행해왔었다고 증언한다.³⁰⁾

키바(Kiva ; 푸에블로 인디안의 독특한 제당)에서 나와, 타오스의 장대 오르기에 참가한 소년들은 10명이었다. 그중 한명이 동료들의 어깨를 타고 장대를 오르기 시작하여 14m가까운(45feet) 꼭대기까지 올랐다. <도 4>에서처럼 장대위에 가로로 붙박아 열십자를 이룬 곳에는 노랑·주황·빨강주머니를 각각 같은색의 긴 천으로 매달아 드리웠고, 목을 찢려 죽인 새끼 양 한 마리도 달아매어 놓았다. 주머니 속엔 아마도 추수한 옥수수, 콩, 밀 등이 들어 있을 게다. 밧줄을 이용하여 이들 세 주머니와 희생 양을 각각 하나씩 아래로 내리고 나서 장대 위의 소년은 노래를 불렀으며, 아래의 소년들도 이에 합세하였다. 임무를 마친 소년이 줄을 타고 땅으로 내려서자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있다가 그 소년에게 닥아가서 수고를 치하하였다. 행사뒤엔 장대를 뽑아낸다고 했다. 장대오르기 풍속을 가진 인디안들은 매우 드무나, 타오스 인디안과 같은 티와(Tiwa)어를 사용하며, 남쪽으로 18마일(약 29Km)떨어진 이웃인 피쿠리스(Picuris Pueblo)만은 장대오르기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9) 어도비(adobe:찰흙과 짚을 섞어만든 벽돌)로 지은 5층 가옥. John J.Bodine [Taos Pueblo]Rio Nuevo.1996.(초판은 1977). 8쪽. / 타오스 인디안들은 본래 유목민으로 북쪽에서 이동해 왔다는 설이 있다. 같은책, 35쪽.

30) 김부규(1938.남.토민.동관과 8촌).2007.11.14녹음대담. 마두동의 박영봉은 두레간에 성역 다뚫할 때 장목을 뽑느라고 상대방의 농기에 올라가는 것을 보셨다 한다(최장규 전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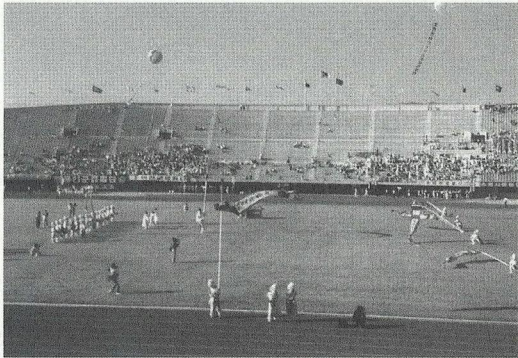


사진43. 송포호미걸이의 깃절받기①
1986년도 경기도민속경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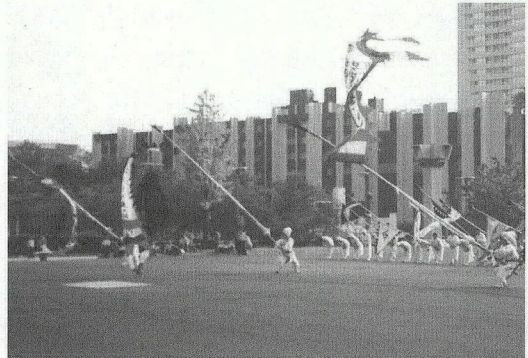


사진44. 깃절받기②
1985년도 국립극장 대동놀이에서
-손님두레들의 깃절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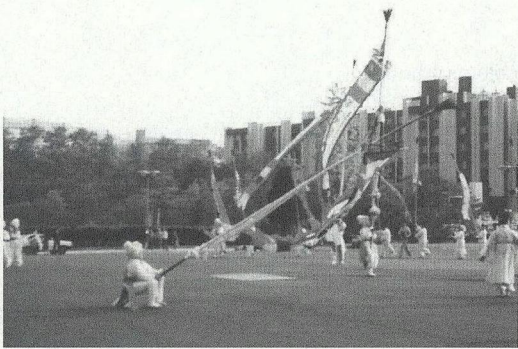


사진45. 깃절받기③
1985년도 국립극장 대동놀이에서
-주인두레의 깃절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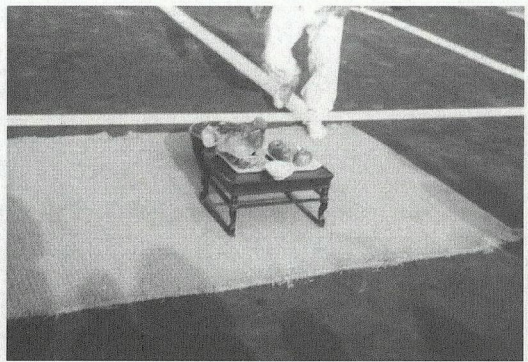


사진46 ①. 대동제의 젓상 장면
1985년 국립극장 대동놀이에서



사진46 ②. 상산제
1986년 9월 고양문화원 팜플렛



사진46 ③. 대동제
1986년 9월 고양문화원 팜플렛



사진47. 송포 호미걸이
1985년도 공연



사진48. 조사놀이 장면
1985년도 대동놀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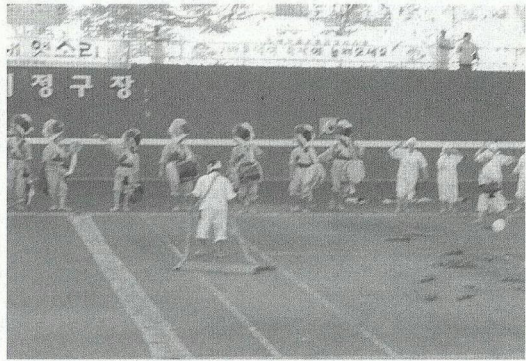


사진49. 고양들소리①
2005년도 경기도민속축제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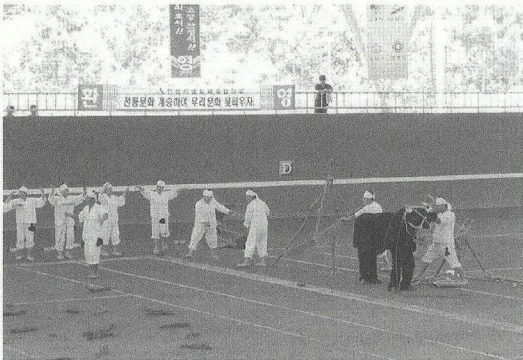


사진50. 고양들소리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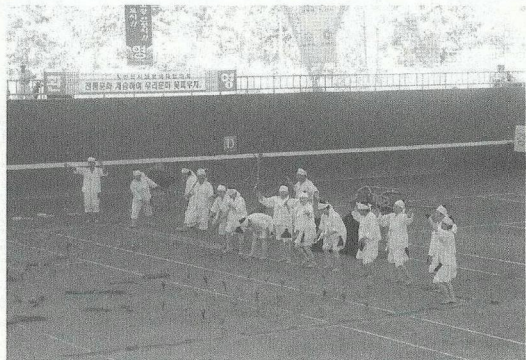


사진51. 고양들소리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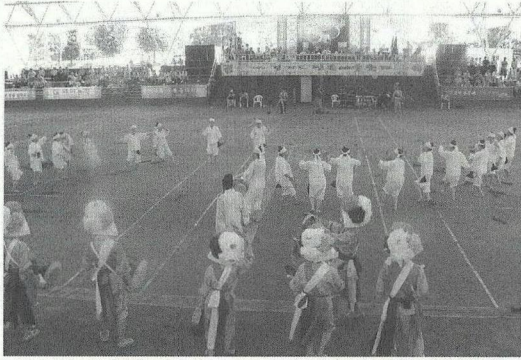


사진52. 고양들소리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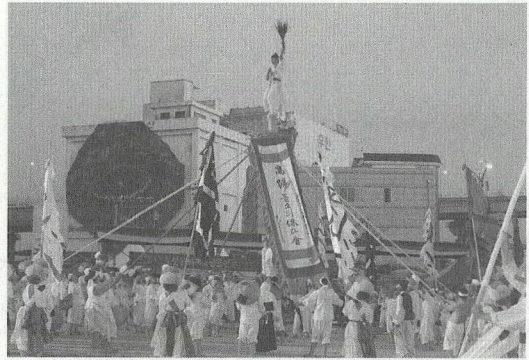


사진53. 고양들소리⑤



사진54. 송포면 대화리 사람들의 조사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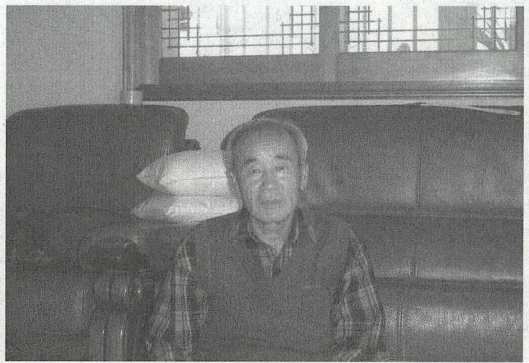


사진55. 김부규
1938. 대화리출생

<도 4> 타오스 마을의 장대오르기

